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사람을 통한 계시: 신적 증거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제42장 '사람을 통한 계시: 신적 증거', 약 449~463쪽(본문의 쪽 표시 기준)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4부에서 계시가 오는 세 통로를 사건·말씀·사람으로 나눴다. 긴 말씀 논의(14~41장)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통로인 '사람'으로 넘어간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 소통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로 알려면 말씀을 쓰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인간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구약의 신의 현현에서 출발해, 모든 계시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거쳐, 말씀을 영감하고 조명하고 입증하며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으로 나아간다. 이어 장의 무게중심인 '신적 증거' 문제로 들어간다. 여기서 그는 성령의 내적 증거는 믿음의 '원인'이고 성경의 자증은 믿음의 '근거'라고 정리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5항을 보완한다. 끝으로 성령의 계속되는 사역이 성경의 충족성이나 닫힌 정경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설교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짚으며 은사주의와 대화할 지점을 연다.

📜 절별 정리

📜 1. 들어가며 — 사건·말씀·사람, 그리고 늘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소제목 없는 도입부)

프레임은 먼저 책의 큰 지도를 다시 펼친다. 1부는 '인격적 말씀 모델'을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인격적으로 말을 걸어오시는 것이고, 그 말씀에는 다스리는 능력·의미 있는 권위·인격적 임재가 있다는 틀이다. 2부는 현대 자유주의,

논쟁도 가장 많은 영역이기 때문이다. 사건·말씀·사람이라는 세 통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 셋(다스림·권위·임재)을 비춘다. 다만 통로 하나하나가 세 속성을 모두 전한다. 사람을 따로 다뤄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말씀이 하나님 자신과 같으므로(8장) 계시에 인격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의미는 적용'이라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말의 뜻을 그 말이 삶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와 떼어 놓을 수 없다고 본다(37장, 40장).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쓰시는지,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또는 그르게 쓰는지를 봐야 한다. 끝으로 그는 성경 시대와 우리 시대 사이의 거리 문제(40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동시대적'이라고 답한다. 역사적 배경을 살펴 해석할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하지만 거리 때문에 말씀에 아예 닿을 수 없다는 가능성은 사라진다.

1. 계시의 세 통로: 사건·말씀·사람
2. 세 통로는 다스림·권위·임재를 비춘다
3. 말씀을 알려면 말씀 쓰는 '사람'을 봐야 한다
4. 말씀은 비인격적 힘이 아니라 가까이 오신 하나님
5. 하나님 말씀은 늘 동시대적이다

> **신명기 30:11-14**
> 말씀은 멀리 있지 않고 입과 마음에 가깝다 — 말씀은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자신
>
> 11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 12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 아니요 13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14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 **로마서 10:6-9**
> 바울이 같은 본문을 복음의 말씀에 적용 — 말씀의 가까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짐
>
> 6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 2. 신의 현현 (원문 1절)

신의 현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 흔히 천사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로 나타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밝힌다. 야곱과 씨름한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으로 드러난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도 신비롭게 여호와와 연결된다. 가장 흔한 형태는 영광의 구름이다. 그 안에서 천상의 존재들과 영광의 빛이 하나님을 둘러싼다.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바로 이것이고, 하나님이 그 구름 안에 계셨다. 그래서 이 계시는 강한 시각적 성격을 띤다. 예수 그리스도도 신의 현현이지만 그 이상이시다. 그분은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시고 실제로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깊은 계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은 죄 없는 가장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이다. 요한은 예수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가현주의에 맞서 듣고 보고 만졌다는 생생한 말로 증언한다. 성령도 현현과 관련된다. 메러디스 클라인은 창세기 1:2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영을 영광의 구름으로 보고 '영광의 영'이라 부른다. 천사의 인격이 어떻게 계시가 되는지는 프레임 스스로 할 말이 많지 않다며 다루지 않는다.

1. 현현: 하나님이 피조물 모습으로 나타나심
2. 하나님의 사자, 야곱의 씨름 상대, 세 사람
3. 가장 흔한 형태는 영광의 구름
4. 예수는 현현 이상이다 — 참으로 사람이 되심
5. 클라인: 창세기 1:2의 영은 영광의 구름

> **창세기 16:7-14; 21:17-21**
>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 결국 하나님으로 밝혀짐

창세기 16:7-14 7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8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

창세기 21:17-21 17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9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0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창세기 32:22-32 (32:24)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드러남

창세기 32:22-32 22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새 23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26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

창세기 18:1-33 [1]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2]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3]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4]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5]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6]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

출애굽기 16:6-10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 안에 계심 — 현현의 대표 형태

[6]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7]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9]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10]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요한복음 14:8-9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 예수가 아버지를 보여 주는 현현

[8]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요한일서 1:1-3

듣고 보고 만진 생명의 말씀 — 가현주의 반박, 성육신의 실재

[1]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창세기 1:2

클라인의 해석: 수면 위의 영 = 영광의 구름(영광의 영)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 3. 모든 계시의 중재자 그리스도 (원문 2절)

앞 장들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7~8장, 11장), 말씀의 주된 화자(10장),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음성(14장)으로 다뤄졌다. 여기서 프레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모든 형태의 계시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말한다. 중재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계시를 전하고 잇는 분이라는 뜻이다. 근거는 단순하다. 성자는 성부가 하시는 모든 일을 함께 하신다. 성자는 창조자이시고 섭리의 주이시다. 그러므로 자연계시도 결국 그리스도의 계시다. 자연계시는 창조된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 주시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는 구속자이시므로 구원을 준비하는 모든 사건까지 포함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신다. 또 그분은 그 사건들을 해석하시는 최고 선지자이시다. 성부가 말씀을 전하라고 성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하고, 예수가 세우신 사도들의 말도 그만큼 중요하다. 나아가 예수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 주시는 모범이시다. 하나님, 말씀, 현현, 음성, 창조자, 섭리자, 구속자, 선지자, 모범 — 이 모든 방식으로 그분은 계시의 중재자이시다.

2. 자연계시도 그리스도의 계시다
3. 예수는 성경의 중심 주제이자 최고 선지자
4. 사도의 말이 중요한 것은 예수가 보내셨기 때문
5. 예수는 말씀을 쓰는 법의 모범이다

요한복음 5:19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을 한다 — 논증의 출발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1:1-3; 골로새서 1:15-16; 히브리서 1:2-3

성자는 창조자 — 자연계시도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복음 1:1-3 [1]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15-16 [15]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히브리서 1:2-3 [2]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17; 히브리서 1:3

성자는 만물을 붙드시는 섭리의 주

히브리서 1: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복음 24:25-27; 요한복음 5:45-47; 고린도전서 10:4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그리스도를 말함 — 성경의 중심 주제

누가복음 24:25-27 25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요한복음 5:45-47 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0: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요한복음 3:34-36; 6:63; 7:16; 8:28; 12:47-49; 17:8; 19:24, 31

예수의 말은 아버지께 받은 말 — 최고 선지자 (19:24, 31은 원문 표기 그대로이며, 문맥상 14:24, 31로 보임. 확인 필요)

요한복음 3:34-36 34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8:28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12:47-49 47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8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요한복음 17: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9:24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요한복음 19:31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요한복음 3:34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 — 선지자 사역의 근거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요한복음 6:68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 예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함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마태복음 11:29; 16:24; 요한복음 13:35; 고린도전서 11:1; 빌립보서 2:5-11; 베드로전서 2:21; 요한일서 3:16

예수는 따라야 할 본 — 말과 행동으로 오는 계시

마태복음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6: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13: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고린도전서 11: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2:5-11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

베드로전서 2: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 4. 성령의 사역 ① — 영감, 조명, 그리고 '나타나심' (원문 3절 앞부분)

성자처럼 성령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하신다. 창조와 섭리에서 일하시고, 육체와 영의 생명을 주시고, 씻기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신다. 성령은 교회의 교사이시고 선지자와 사도의 영이시다. 히브리서는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성령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게 만드시는 분, 곧 영감하시는 분이다. 영감은 성령께서 사람 저자를 움직여 그 말과 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일이다(23장). 디모데후서 3:16의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일이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영'이라는 단어는 숨이나 바람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시다. 성령은 독자를 조명하기도 하신다. 조명은 성령께서 죄로 어두워진 우리 마음을 밝혀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 우리의 죄 된 성향은 진리를 억누르고, 그리스도 없이 율법을 읽으면 마음에 수건이 덮인다. 존 머레이는 이 빛을 '인지 능력의 중생'이라 부른다. 성령께서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 가는 능력 자체를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다. 성령의 조명이 성경을 말씀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객관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다. 머레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묻는다. 성령의 증거는 조명뿐인가? 그는 아니라고 답한다. 성령은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적극적으로 증언하신다. 여기서 나타나심(헬라어 아포데익시스)은 증명·입증을 뜻한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새 내용을 더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한다. 프레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는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초자연적이라고 정리한다.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의 음성 식별, 참 선지자 구별, 정경 식별, 성경 해석이 모두 그렇다. 정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 성경에 들어간 책들의 목록을 말한다.

1. 성령은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신다
2.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숨결이다
3. 죄는 진리를 누른다 — 그래서 조명이 필요하다
4. 머레이: 조명에 더해 능력 있는 '나타나심'
5. 나타나심은 내용 추가가 아니라 설득이다
6. 말씀을 알아보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자연적

창세기 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시편 104:30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욥기 33:4; 요한복음 3:5-8; 6:63; 로마서 8:11

성령은 육체와 영의 생명을 주심

욥기 33:4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요한복음 3:5-8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로마서 8: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11

성령이 씻기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심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민수기 11:25; 마태복음 10:20; 요한일서 2:27

성령은 교회의 교사, 선지자와 사도의 영

민수기 11:25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칠십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마태복음 10: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요한일서 2: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히브리서 10:15-17; 예레미야 31:33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인용 — 성령이 말씀의 화자

히브리서 10:15-17 15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레미야 31:33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창세기 41:38; 민수기 24:2; 사무엘상 10:6; 이사야 61:1; 누가복음 1:17; 베드로전서 1:11

선지자들은 성령의 권위로 말함

창세기 41:38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민수기 24:2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사무엘상 10:6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사야 61:1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누가복음 1:17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베드로전서 1: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마태복음 10:20; 누가복음 3:14; 요한복음 3:34; 14:16-17; 15:26; 16:13; 사도행전 2:4; 고린도전서 2:4; 12:3

예수와 사도들도 성령으로 말함 (누가복음 3:14는 원문 표기 그대로이며, 문맥상 4:14로 보임. 확인 필요)

마태복음 10: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누가복음 3:14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요한복음 3:34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요한복음 14:16-17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5: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사도행전 2: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고린도전서 2:4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12: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으로 된 것 — 성령이 성경의 저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고린도후서 3:15

그리스도 없이 읽으면 마음에 수건이 덮임 — 조명이 필요한 이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요한복음 3:5; 골로새서 3:10

새 생명은 아는 능력의 새로워짐을 포함

요한복음 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골로새서 3: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시편 119:18; 고린도전서 2:12-15; 에베소서 1:17-19

성령이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심

시편 119:18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고린도전서 2:12-15 [12]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에베소서 1:17-19 [17]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5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옴 — 적극적 증거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4-5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서게 함

[4]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데살로니가전서 2:13

청중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 — 설득의 결과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요한일서 2:20-27

기름 부음이 진리를 가르침 — 새 내용이 아니라 받아들이게 함

20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1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2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23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4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5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

데살로니가후서 2:2

(각주) 거짓 계시에는 거짓 말과 함께 거짓 영이 있음 — 말씀과 영은 짝을 이룬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텍스트의 저자가 텍스트를 우리에게 열어준다."

📜 5. 성령의 사역 ② — 내주,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동행 (원문 3절 뒷부분)

성령의 내주도 계시적이다. 내주는 성령께서 신자 안에 인격으로 머물러 사신다는 뜻이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분의 가까운 임재는 성전에 어울리는 단 하나의 성품, 곧 거룩을 향해 우리를 움직인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충동과 그분이 이끄시는 삶의 모양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열매가 자라도록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성령)과 말씀은 언제나 함께 일한다. 성령이 말씀의 내용을 영감·조명·입증하시고, 내주하시는 임재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 프레임은 이 긴 흐름을 이렇게 정리한다. 원문이 처음 기록될 때부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성경을 듣고 배우는 일은 비인격적인 학문 작업이 아니다. 가르치시는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주고받는 만남이다.

1. 성령의 내주 자체가 계시적이다
2. 성전 된 우리 안에 거룩을 일으키신다
3. 성령: 영감·조명·입증·내주
4. 하나님의 숨과 말씀은 늘 함께 일한다
5. 성경 공부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다

> **고린도전서 3:16**
> 우리는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 — 내주의 근거
>
>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 **갈라디아서 5:16-25**
>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열매 — 내주가 삶의 모양을 이끔
>
>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

창조 때 하나님의 영(숨)과 말씀이 함께 일함

창세기 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시편 33:6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59:21

말씀과 영의 동행 (원문 표기 그대로이며, 시편 59편에는 21절이 없음. 문맥상 이사야 59:21 “내 영과 내 말”로 보임. 확인 필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요한복음 6:63; 16:13

예수의 말은 영이요 생명,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심

요한복음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6: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도행전 2:1-4

성령이 임하자 말씀이 선포됨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데살로니가전서 1:5**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
>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 **베드로후서 1: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6. 인식론과 성령의 증거 ① — 믿음의 '원인'과 '근거' (원문 4절 앞부분)

41장에서 프레임은 성경이 진리임을 확신하는 토대를 다루며 '하나님 자신의 증거'로 마무리했다. 이 장에서는 그 신적 증거가 특히 성령의 증언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았다. 이제 그는 성령의 증거와 성경 자체의 증거가 어떤 관계인지 따진다. 이것은 인식론의 질문이다. 인식론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아는지, 무엇이 믿음을 정당하게 만드는지를 따지는 분야다. 그는 『신지식론』에서 지식이 세 관점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지식이란 자격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의 규범을 창조 세계의 사실에 적용하는 일이다. 이 틀을 적용하면 성경을 아는 길도 셋이다. 성경의 자증은 규범적 관점이고, 사실과 증거는 상황적 관점이며, 마음속 성령의 사역은 실존적 관점이다. 자증은 성경이 다른 권위를 빌리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임을 증언한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그는 중요한 구분을 세운다. 누가 무엇을 왜 믿는지 물을 때, 답은 '원인'(심리적·사회적으로 그렇게 믿게 된 까닭)일 수도 있고 '근거'(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이유나 증거)일 수도 있다. 마르크스는 경제적 원인을, 포이어바흐는 투사(인간의 바람을 하늘에 비춘 것)를, 프로이트는 소원 성취를 들어 종교를 불합리하다고 했다. 프레임은 이 설명들을 거부한다. 그리고 설령 그 설명이 맞더라도 원인이 근거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고 말한다. 프랭크가 원이라는 모양을 좋아해서 지구가 둥글다고 믿게 되었다 해도,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과 그 근거는 그대로다. 그렇다고 원인이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무언가가 나를 믿게 하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는다. 성령의 내적 증거는 보통 근거가 아니라 원인이다. 성령의 내적

법칙으로 해석한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성령은 내 눈을 열어 그 증거를 바르게 보고 평가하게 하시며, 내가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신다. 다만 각주에서 그는 덧붙인다. 실존적 관점이 '원인만' 다루는 것은 아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은 하나님의 객관적 진리와 규범을 '좋아하게' 된 마음이고, 그래서 바른 증거와 바른 추론을 고르게 된다.

1. 지식 = 규범을 사실에 적용하는 사람
2. 규범은 자증, 상황은 증거, 실존은 성령
3. 믿음에는 '원인'과 '근거'가 따로 있다
4. 원인이 이상해도 근거는 무너지지 않는다
5. 이유를 물으면 '성령'보다 증거를 말하라
6. 성령은 눈을 열어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신다

> “성령의 증거(실존적)는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믿음의 원인이다.”

📜 7. 인식론과 성령의 증거 ②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5항 다시 읽기 (원문 4절 뒷부분)

프레임은 이 구분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5항을 다시 읽는다. 고백서는 먼저 교회의 증언이 성경을 존중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풍부하게 증명하는 특징들을 나열한다. 내용의 천상성, 교리의 효력,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의 일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체의 목적, 구원의 길을 온전히 드러냄 같은 것들이다. 그러고 나서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완전한' 설득과 확신은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증언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온다고 말한다. 고백서는 증거를 실질적인 것으로 본다. 그것만으로 확실성이 보장된다고 하지도 않지만, 증거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 진술은 흔히 이렇게 읽힌다. 증거가 90%의 확신을 주고, 성령이 나머지 10%를 채워 100%를 만든다. 프레임은 이 진술이 개혁파 문헌의 다른 많은 진술처럼 더 정교하게

여기에 일종의 순환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순환은 1장과 다른 책에서 변호했다고 말한다. 둘째, 성령 없이는 90%가 아니라 1%의 확신에도 이르지 못한다. 중생과 인도가 없으면 우리는 진리에 눈멀고 진리를 억누른다.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자기 목적에 쓸 만큼은 알아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쓰지는 못한다. 따라서 성령은 새 증거나 논증을 보태지 않는다. 불확실한 증거를 기적처럼 확실하게 바꾸시지도 않는다. 성령은 이미 객관적으로 확실한 것을 확증하시고, 영적 무지를 걷어 믿음을 만들어 내신다. 결론은 이렇다. 성령의 사역은 믿음의 원인이고, 성경의 자증은 믿음의 근거이며, 둘 다 필요하다. 각주에서 그는 성경 밖의 증거도 다룬다. 성경 스스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증언한다고 말하므로, 성경 밖 증거는 성경이 허락한 증거다. 이런 증거는 자증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자증의 일부가 된다.

1. 1장 5항: 증거는 풍부, 완전한 확신은 성령
2. 흔한 읽기: 증거 90% + 성령 10%
3. 프레임: 성경의 증거 자체가 100% 확실하다
4. 성령 없이는 1%의 확신도 없다
5. 성령은 믿음의 원인, 자증은 믿음의 근거
6. 성경 밖 증거도 성경이 허락한 자증의 일부

> **로마서 1:18**
> 사람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 성령 없이는 1%의 확신도 없는 이유
>
>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 **시편 19:1; 로마서 1:18-20**
> (각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증언함 — 성경 밖 증거를 쓸 근거
>
> **시편 19: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
> **로마서 1:18-20** [18]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시편 19:1-6, 7-11

(각주) 하늘의 질서와 율법의 완전함을 나란히 둠 — 세상을 다스리심이 말씀의 참됨을 보여 줌

시편 19:1-6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5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6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시편 19:7-11 7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시편 147:1-18, 19-20

(각주)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이스라엘에 주심 — 같은 논리

시편 147:1-18 1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2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3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4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5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6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

시편 147:19-20 19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 8. 성령과 성경의 충족성 (원문 5절)

이렇게 이해하면 성령의 사역과 성경의 충족성은 충돌하지 않는다. 충족성은 성경이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뜻이다(32장). 그렇다고 성령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쓰려면 성령이 꼭 필요하다. 성령이 계속 일하신다고 해서 정경이 아직 열려 있는 것도 아니다. 예수의 사역이 완성된 뒤 성령은 성경에 더할 책을 더 이상 영감하지 않으신다(22장). 그러나 성령은 사본, 본문, 편집본, 설교, 가르침, 신학, 신앙고백서 안에서 계속 말씀을 조명하신다. 목사를 위해 좋은 설교를 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그의 오류를 막고 덕을 세우는 말을 주시도록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성령은 목사의 입술을 다스려 그의 말을 정화하신다. 이것은 영감이 아니지만 영감과 비슷하다. 설교는 이사야나 바울의 말과 달리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같지 않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설교를 다스리는 만큼, 그 설교는 성경 안의 말씀처럼 권위가 있다(35장). 프레임은 이것이 개혁파의 분명한 견해이면서, 은사주의 배경의 형제자매와 대화할 거리가 된다고 본다. 그들이 말하는 '계속되는 계시'는 대개 성경과 같은 지위를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성경과 어떻게 다른지 규정하기를 어려워한다. 때로 그들이 말하는 '계속되는 예언'은 개혁파가 말하는 '성령 충만한 설교'와 매우 비슷해 보인다. 정경은 닫혔다. 그러나 성령이 신자들의 말, 특히 설교와 가르침에 계속 영향을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이 논쟁의 더 깊은 쟁점은 각주에서 번 포이트레스의 1996년 논문(JETS)으로 넘긴다.

1. 충족성은 성령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는다
2. 정경은 닫혔다 — 새 책의 영감은 없다
3. 성령은 사본·설교·신학 속에서 계속 조명하신다
4. 좋은 설교는 영감은 아니지만 영감과 비슷하다
5. 설교는 틀릴 수 있고, 성경에 묶일 때 권위가 있다
6. 은사주의의 '계속되는 예언'과 대화할 지점

⚖️ 오해와 반론

📖 용어

신의 현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사·사람·영광의 구름 같은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일.

가현주의
예수가 참 사람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초대 교회의 이단적 생각.

영감
성령께서 사람 저자를 움직여 그 말과 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조명
성령께서 죄로 어두워진 마음을 밝혀 이미 주어진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일.

나타나심(아포데익시스)
'증명·입증'이라는 뜻의 헬라어로, 성령이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능력 있게 설득하시는 일.

내주
성령께서 신자 안에 인격으로 머물러 사시며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일.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확신하게 하시는 일.

자증
성경이 다른 권위를 빌리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임을 증언하고 입증한다는 것.

삼중 관점(규범·상황·실존)
모든 앎을 하나님의 규범, 주어진 사실, 아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세 방향에서 함께 보는 프레임의 방법.

충족성·정경

충족성은 성경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고 있다는 뜻이고, 정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되어 닫힌 성경의 목록이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하나님은 사건과 말씀뿐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 중심에 모든 계시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 성령은 말씀을 영감하고, 조명하고, 입증하고, 우리 안에 사시며 순종하게 하신다.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일한다.
- 성경의 자증은 믿음의 근거이고, 성령의 내적 증거는 믿음의 원인이다. 증거는 객관적으로 확실하지만, 성령 없이는 1%의 확신도 없다.
- 성령의 계속되는 사역은 성경의 충족성이나 닫힌 정경과 충돌하지 않는다. 성령은 오늘도 설교와 가르침 속에서 말씀을 조명하신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3편 · 성령의 내적 증거 · 확신은 어떻게 오나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